

上人과의 交遊를 통해 본 栗谷詩의 특징

김원준*

|| 차례 ||

- I. 문제제기
- II. 율곡의 불교 인식
- III. 상인과의 교유시 형식 분석
- IV. 상인과의 교유시에 나타난 특징
- V. 마무리

【 】

본 논문은 상인과의 교유를 통해 나타난 율곡시의 특징을 고구한 것이다. 상인과의 교유시가 지닌 특징을 밝히기 위해 불교에 대한 율곡의 인식부터 살펴야한다. 불교에 대한 율곡의 인식은 금강산 하산 이후부터 비판적 시각으로 일관했지만 이통기국설과 같은 독자적 이론이 화엄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상인과의 교유시에 나타난 특징은 ‘禪學에 대한 儒道의 논리’, ‘상인과의 정서적 교유’, ‘禪定 공간의 미감’으로 대별될 수 있다. ‘禪學에 대한 儒道의 논리’에서는 도학의 논리를 근거로 하여 선학의 無證·無徵함을 비판한 후 유도의 길로 나아가길 설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인과의 정서적 교유’에서는 이별의 정한과 유산에 따른 흥취가 주를 이룬다. 상인과의 이별이 知友와 헤어질 때 보여주는 애뜻한 惜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긴다. 상인과 함께한 유산의 흥취는 무소유적이며 자연과 同樂으로 이어지는 시적 특징을 보인다. ‘禪定 공간의 미감’은 산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젊은 시절에는 선정 공간이 전면에 배치되지 않아 이원화에 따른 조화의 미감을 보여주지만, 장년 시절에는 無碍, 造化, 合一의 경지에 따른 미감을 보여주어 그 특징적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차이를 지닌다.

주제어 : 상인, 교유시, 선학, 선정 공간, 정서적 교유, 이별, 흥취

I. 문제제기

栗谷 李珥(1536~1584)와 관련한 기존 연구를 검색해보면 2,000건을 상회하고 있다. 그의 위명을 고려한다면 기존 연구 결과물이 결코 과하다고 할 수 없지만 다소 편향적인 면을 보인다. 율곡에 대한 기존 연구의 상당수가 교육, 철학, 경제, 정치 등에 할애되다보니 그의 시문학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에 미치지 못한다. 율곡의 성리학적 위상이나 경제적 역할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시문학 연구 결과물은 미흡하지 않을 수 없다. 율곡은 3권의 시집을 통해 500수가 넘는 시를 남겼다. 그의 명성을 생각할 때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신의 시적 특징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분량이다. 그럼에도 율곡 시를 대상으로 한 학술논문은 의외의 결과를 보여준다. 학위논문을 제외한 율곡 시문학과 관련한 순수 학술논문은 30편을 넘기지 않고 있는 실정¹⁾이다.

율곡 시문학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율곡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점을 포착하여 논의의 진전을 보였다. 『精言妙選』에 제시된 풍격을 바탕으로 한 율곡 시의 풍격 연구²⁾, 산수 유람을 제재로 한 산수시 연구³⁾,

1) 국내학회지 원문을 제공하는 DB의 자료(DBpia, Kiss, RISS)를 검색한 결과 율곡의 시문학에 국한된 학술논문의 경우 의외라고 생각하리만치 그 결과물이 빈약하다. 오히려 학위논문(석사학위논문이 주가 되지만)이 그에 못지않은 연구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율곡 시문학 전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졌지만 다양한 시각에 따른 시문학 연구는 빈약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철학적 사유를 보여주는 설리시 연구⁴⁾, 율곡과의 교유인물들에 대한 교유시 연구⁵⁾ 등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 율곡시의 이미지나 우국연군과 관련하여 특징적 면들을 밝혔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이 율곡의 시를 대상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공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율곡시 연구에 있어 외연의 확대나 천착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끌어내는 데는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율곡시의 특징을 그의 교유시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율곡시 연구에 있어 우선적으로 교유시를 대상으로 삼은 데는 이유가 있다. 『栗谷全書』⁶⁾에 수록된 율곡의 시는 445제 526수로 이루어졌다.⁷⁾ 이 가운데 시 속에 인명이 거론된 것만 가려보면, 164인이 나오며 시수는 275제 298수가 있다. 인명이 거론되지 않은 차운시와 증답시를 고려한

2) 박준희, 「栗谷의 ‘沖澹蕭散’과 그의 詩世界」,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조기영, 「『정언묘선』의 풍격과 栗谷의 詩道」, 『동양고전연구』31집, 2008.

3) 배진한, 「栗谷 山水詩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손유진, 「율곡시에 나타난 산수유람 체험의 형상화 방식과 지향」, 『동방학』 24집, 2012.

4) 최문형, 「栗谷의 主氣論의 文學觀과 詩世界」,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박경신, 「栗谷 李珣의 道學詩 考」, 『한문고전연구』7집, 2003; 원형갑, 「栗谷과 東洋의 詩學精神」, 『율곡사상연구』, 2집, 1988; 김상일, 「율곡 이이의 禪 체험과 그 시세계」, 『한국문학연구』24집, 2001; 정향교, 「栗谷 李珣의 儒學詩 考」, 『율곡학보』2집, 1996; 정향교, 「栗谷의 漢詩에 나타난 儒·佛觀」, 『율곡학보』2집, 1997.

5) 박경신, 「栗谷 李珣의 交遊詩 考」, 『한문고전연구』12집, 2006; 김혜숙, 「율곡의 교유시 연구1」, 『한국한시연구』8집, 2000.

6) 이하 『전서』로 표기

7) 논문에 따라 시수의 차이를 보인다. 논자는 한국문집총간의 『율곡전서』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권1에 114제 144수, 권2에 157제 189수, 습유 권1에 174제 193수로 이루어져 445제 526수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권1의 <詠四皓 三首>는 제목만 나오고 시는 쇠록에 수록되었으며, 권2의 <理氣詠> 1수는 권10 <答成浩原>의 편지글 아래 수록되었다. 정향교는 「율곡 이이의 시문학교」에서 시수를 487수로, 홍학희는 「율곡 이이의 시문학 연구」에서 445제 514수로, 박경신은 「율곡 이이의 시문학 연구」에서 515수가 수록되었다고 했다.

다면 더 많은 교유시가 있음을 의미한다.⁸⁾ 전체 시의 6할을 차지하는 교유시의 비중을 고려한다면 율곡의 교유시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교유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분류와 함께 시적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일환으로 유자와의 교유와 상이할 수 있는 上人을 대상으로 율곡 교유시의 특징적 면모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의 방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진행될 것이다. 상인과의 교유라는 면에서 사상적 견해가 상충할 수밖에 없기에 불교에 대한 율곡의 인식 전반을 살피는 것이 첫 번째 연구 과제가 된다. 이어서 상인과의 교유시 24수를 대상으로 시공간적 분류, 상인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상인과의 교유시에 나타난 유형적 특징을 밝히는 것이 두 번째 과제다. 앞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상인과의 교유 속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율곡의 의중이나 심경이 어떻게 시화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으로 세 번째 과제를 삼는다.

II. 율곡의 불교 인식

율곡은 유교를 國是로 삼았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유자로, 理氣互發을 주장한 퇴계에 대응하여 氣發理乘을 제시함으로써 조선 성리학의 한 축을 정립한 인물이다. 이런 전제를 두고 본다면 불교에 대한 율곡의 인식은 결코 호의적일 수 없다. 비록 율곡의 행적에서 불가에 경도된 경우가 나타나고 그의 理通氣局說이 불교 교리를 수용했다는 점이 있지만 유자

8) 정향교는 인물관련 시수를 245수, 홍학회는 차운시 164제 193수 증답시 135제 149수, 박경신은 375수의 교유증답시가 있다고 했다.

본연의 자리에서 자신의 독창적 성리학 이론을 전개했고 유가적 가치 이념을 실천에 옮겼다. 율곡의 불교 인식이 당대 유자들과 다른 시각에서 접근케 한 동인은 그가 19세 때 금강산에 들어가 禪門에 종사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의 불교인식은 金剛山 입산 전과 하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율곡이 금강산에 들어가기 전에 보여준 불교 인식부터 살펴본다. 입산 전 불교에 대한 율곡의 인식은 문인인 金長生의 行狀⁹⁾과 宋時烈의 疏¹⁰⁾에서 잘 나타나 있다. 율곡의 불교 정도에 대해서는 그의 학문적 확장과 모친 사임당의 죽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行장에서 金長生은 禪門으로 들어선 계기를 모친의 죽음과 관련지었다. 모친을 여원 슬픔에서 접하게 된 佛書는 그로 하여금 生死의 설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또 그 학문이 간편하면서도 고상하고 오묘하여 속세를 떠나 구도해 보려는 의도에 따른 것¹¹⁾이라 했다.

율곡이 불교에 경도된 직접적 계기는 모친의 상을 당하여 그 애통함을 이기지 못한 데서 출발한다. 行장에 보듯이 사임당의 상을 당하기 전까지 율곡은 성현의 학문에만 專心했다¹²⁾. 율곡의 行장만 본다면 성현의 학문에서 선문으로의 경도는 모친의 죽음에 따른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였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불교에 대한 율곡의 관심은 모친의 죽음에 따른 비애가 생사의 본질적 물음을 불러오고 그 해답을 불서를 통해 얻게 된 데서

9) 『全書』권35, 行狀 <門人金長生撰>. 전서의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국역 『율곡전서』와 율곡학회 『율곡학연구총서』자료편을 참조했음.

10) 송시열, 『宋子大全』권19, <進文元公遺稿 仍辨師友之誣 又乞許孫疇錫歸田讀書疏 乙丑九月三十日>

11) 『全書』권35, 行狀 <門人金長生撰>, “哀慕不自克 常日夜號泣 一日 入奉恩寺 披覽釋氏書 深感死生之說 且悅其學簡便而高妙 試欲謝去人事而求之”

12) 『全書』권35, 行狀 “十三歲 中進士初試 文章日就 聲聞藉藉 而亦不屑爲也 遂專心于聖賢之學”

기인한 것이다. 이는 무진년(1567)에 올린 <辭副校理疏> 가운데 “일찍이 모친을 여의고 망녕되이 슬픔을 억누르려 한 나머지 마침내 불교에 탐닉하게 되었습니다.”¹³⁾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율곡이 선문에 종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모친의 죽음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나 그 이전에 보인 그의 학문적 경향을 무시할 수 없다. <辭副校理疏>에서 율곡은 “신은 본시 한양의 한 평민으로 어린 나이에 도학을 추구하였으나 옳은 방도를 알지 못하고, 諸家에 범람하여 안정된 바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¹⁴⁾라고 하여 제가의 書에 넘나들었음을 자인했다. 이는 송시열의 상소문에서도 알 수 있다.

생각건대 文成公 臣 이이는 타고난 자질이 지극히 고명하여 겨우 5, 6세 때에 이미 학문하는 방법을 알았고 10세가 되어서는 경서를 다 통달하고서, “聖人の 道가 이뿐이란 말인가?” 했다고 합니다. 불가와 도가의 책들을 두루 열람했는데 그중에서도 『楞嚴經』을 가장 좋아했습니다.¹⁵⁾

이로써 보건대 율곡의 선문 종사는 비록 모친의 죽음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이미 불서를 열람하여 佛學의 간편하고 高妙한 점을 좋아한 데서 기인한다. 율곡의 선문 경도는 모친의 죽음으로 인해 촉발되었지만 이면에는 諸家를 범람할 정도의 왕성한 학문적 탐구가 그 바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율곡이 입산하여 禪家의 頓悟法이 지닌 묘리를 깨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다¹⁶⁾는 점에서도 보여진다.

13) 『全書』권3, <辭副校理疏> “早喪慈母 以妄塞悲 遂耽釋教”

14) 상계서, 같은 곳, “臣本漢陽一布衣也 髫年求道 學夫如方 泛濫諸家 罔有底定”

15) 송시열, 전계서, 같은 곳. “竊惟文成公臣李珣 天資極高 年纔五六歲 已知爲學之方 逮及十歲 盡通經書而曰 聖人之道 只此而已乎 於是泛覽佛老諸書 而於其中最好楞嚴一書”

이렇게 볼 때 율곡 입산의 주된 동기가 선문 종사에 있겠지만 입산에 앞서 벗에게 준 이별의 글에서 다른 동기를 찾을 수 있다.

氣는 사람들이 다 같이 받은 것이니 이를 잘 배양하면 心에 사역되지만 잘 배양하지 못하면 심이 기에 사역을 당하게 된다. ~ 공자가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한 것은 흐르는 물과 높이 솟은 봉우리만을 취한 것이 아니라 動靜의 體를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진 이와 지혜로운 이가 氣를 배양하는 방법을 체득하려면 산과 물을 버리고 어디서 찾겠는가?¹⁷⁾

율곡이 벗에게 밝힌 입산 동기는 氣를 배양하는 방법을 체득하기 위해 서라고 했다.¹⁸⁾ 기가 잘 길러져야 마음은 기를 부려 七情을 통솔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이 몸을 주재하기 위해서는 기를 잘 길러야 하는데, 이를 위한 최상의 조건으로 靜之道와 動之道가 구비되어 있는 산수를 찾아야 한다. 山門에 들어가 계율을 지키고 禪定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 율곡의 입산은 선학을 통한 깨달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儒家 수련의 장으로써 찾아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율곡이 선학의 妙理를 깨치기 위해 입산한 데는 異論이 없겠지만 유자의 길에 입각하여 儒道로써 禪에 승했음은 자명

16) 『全書』권35, <行狀> “吾少時 妄意禪家頓悟法 於入道甚捷而妙 以萬象歸一 一歸何處爲話頭 數年思之 竟未得悟” 선가 돈오법이 지닌 빠르고 묘한 법을 깨닫기 위해 입산했지만 참된 학설[非眞]이 아님을 알게됨으로써 유자 본연의 길로 돌아서게 되었다.

17) 송시열, 『宋子大全』권19, <進文元公遺稿 仍辨師友之誣 又乞許孫疇錫歸田讀書疏 乙丑九月三十日> “氣者 人之所同得 而養之則役於心 不能養之則心爲氣役 ~ 孔子曰 智者樂水 仁者樂山 樂山水者 非取其流峙而已 取其動靜之體也 仁智者之所以養氣者 捨山水而奚求哉” 율곡의 <행장>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8) 송석구는 율곡이 입산하는 근본 동기를 이 글을 근거로, “율곡의 입산은 일시적 도피가 아니라 명백한 철학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 보았다. 宋錫球, 『韓國의 儒佛思想』, 思社研, 1985, p.391.

하다 하겠다.

율곡의 山門生活은 다음 해(1555년) 하산으로 막을 내린다. 율곡이 선학을 중단하고 하산한 이유는 禪旨가 그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선학을 두고 율곡은 착실함이 없다고 했다. 선학은 다만 이 마음이 내달리는 길을 끊어 정신을 집중시켜 靜함이 지극하여 虛明한 경지에 나아가게 할 뿐¹⁹⁾이라는 점에 이유를 두었다. 體用이 一源이라는 성현의 뜻과 달리 허명을 좇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하산 후 自警文을 지어 스스로 경계하여 儒道에 전심할 것을 다짐했다.

율곡은 자경문을 통해 뜻을 크게 가져서 성인의 경지에 가는 것을 준칙으로 일삼고자 했다.²⁰⁾ 율곡이 선학을 떨치고 유자 본연의 길로 돌아선 것은 허명을 추구하여 誣辭僞說하는 선학이 참된 학설이 아님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특히 선학의 參究 방법인 화두가 기만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정신을 집중하고 허명한 경지에서 화두에 매달려 전일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뜻을 두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다. 결국 화두에 갇혀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선학이므로 참된 학설²¹⁾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非眞의 선학에서 참된 성현의 가르침으로 돌아선 율곡은 불씨의 폐해를 『성학집요』에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율곡은 『성학집요』에서 “불교는 夷狄의 한 법이다”라고 제시한 후 정명도, 주자, 정자 등의 말을 빌려 그 폐해를 밝힌 후 자신의 배불론을 보여주었다. 율곡은 佛氏說의 精粗, 用功之要,

19) 『全書』권35, <行狀> “只欲其截斷此心走作之路 凝聚精神 以造靜極虛明之域”

20) 상계서, 권14, <自警文> “先須大其志 以聖人爲準則 一毫不及聖人 則吾事未了”

21) 『全書』권35, <行狀> “嘗語學者曰 吾少時 妄意禪家頓悟法 於入道甚捷而妙 以萬象歸一 一歸何處爲話頭 數年思之 竟未得悟 反以求之 乃知其非眞也” 앞서 인용한 송시열의 疏에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無意爲得道를 들어 그 害를 순차적으로 밝혔다.

첫째, 佛氏說의 精粗에서 조잡한 것으로는 윤리나 인과응보설로 우매한 백성들을 유혹한다는 점을 들었고, 정미한 것으로는 심성에 대한 논의와 적멸을 종지한 불설의 정미함을 들어 그 폐해를 지적했다. 둘째, 선학의 깨달음 방법에 현혹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不立文字, 直指人心, 見性成佛, 頓悟漸修와 같은 覺悟의 방법에 빠져들 수 있음을 경계했다. 셋째, 得道에 대한 지적이다. 마음을 궁구하고 고요히 좌정하여 豁然大悟함으로써 無意로 道를 얻는 선학을 두고 간사하고 도피하는 학문이라 비판했다.

앞선 논의를 통해 불교에 대한 율곡의 인식은 입산 전후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율곡은 副校理를 사양하는 상소문²²⁾에서 불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모친을 여인 슬픔으로 인한 불교의 관심은 입산으로 이어져 선문에 종사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것들은 터무니 없는 속임수로 거짓말임을 깨닫게 되었다. 율곡이 선학의 誣辭僞說함을 들어 異端의 학설임을 천명함으로써 유자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의 사상형성에 있어 선학의 영향을 도외시킬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율곡의 성리사상은 당대 巨儒인 퇴계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퇴계가 理氣互發說을 제시했다면 율곡은 氣發理乘, 理通氣局說을 제시하여 理氣를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다. 퇴계가 주자의 성리사상을 근간으로 理到說을 제창했다면, 율곡은 화엄사상과 유사한 理通氣局설을 제시한 것이다. 서수생은 율곡의 理通氣局은 화엄철학의 영향에 따른 것²³⁾으로 보았으며, 이희재 또한 율곡의 理通氣局 역시 불교의 화엄철학의 理事無礙, 通局無礙를 연상한다²⁴⁾고 했다. 율곡이 하산 후 배불론의 입장에 섰지만

22) 『全書』권3, <辭副校理疏>

23) 서수생, 『퇴율의 불교관』, 『한국의 철학』15호, p.49

24) 이희재, 『율곡의 불교관』, 『율곡사상연구』11집, 율곡학회, p.162. 배종호는 서수생과

그의 이기설에는 선학의 학문적 영향에 따른 학문적 도움과 시아의 확대를 통해 독자적 이론을 형성하는 데 한 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Ⅲ. 상인과의 교유시 형식 분석

율곡은 상인과의 교유를 통해 23제 24수의 시를 문집에 남겼다. 상인과의 교유시는 율곡이 금강산으로 들어간 19세(1554)부터 짓기 시작하여 죽기 2년 전인 47세(1582)까지 지은 것으로 보인다.²⁵⁾ 작시 연도와 관련하여 시기별로 보면 10대에 2수, 20대에 5수, 30대에 8수, 40대에 8수²⁶⁾가 있어 상인과의 교유는 3·40대에 빈번했음을 알 수 있다. 상인과의 교유시에서 實名이 거론된 시는 17수이며 나머지 7수는 (老)僧 또는 山人으로 되어 있어 그 대상을 알 수 없다. 16명(1제 2수)의 실명 상인들을 보면 동일인물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특이하다. 이는 특정 상인과 깊이 있는 교유가 없음을 시사한다. 앞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상인과의 교유시를 작시 연도와 대상, 공간, 그리고 시의 형식 등을 도표를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회재와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의 논문 『栗谷의 理通氣局說』에서 “율곡은 주자의 이른바 理同氣異의 사상을 고수함으로써 그의 理通氣局의 사상을 확립한 바 있지만 그의 理氣는 불학의 理事와는 그 指意가 전연 相異함으로 우리는 율곡의 이통기국설을 淸涼의 이통기국설로부터 암시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율곡의 이통기국설을 주자의 영향 하에 두고 있다. 주자도 한 때 선학에 경도되어 불학의 용어나 개념을 성리학에 차용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수생과 이회재의 견해가 설득력 있다고 본다.

25) 상인과 처음 교유한 시는 <楓岳贈小菴老僧>로 금강산 입산 후에 지은 것이며, 마지막 시인 <題墳菴僧軸>는 앞뒤 시를 고려할 때 47세인 1582년에 지은 것이다.

26) 10대 - 2수(권1), 20대 - 5수(권1 4수, 습유 권1 1수), 30대 - 8수(권1 6수, 습유 권1 2수), 40대 - 8수(권2 5수, 습유 권1 3수)가 수록되었다. 권수에 수록된 시수를 정리하면, 권 1-12수, 권2 - 5수, 습유 권1-6수다.

〈상인과의 교유시 분류〉

제목(형식)	연도(나이)	대상(권)	공간
<楓岳贈小菴老僧> (7절)	1554(19)	老僧(권1)	풍악산
<與山人普應下山至豐岩李廣文之元家宿草堂乙卯> (5율)	1554(19)	普應(권1)	이광문초당
<贈山人智正> (7언 50구)	1558(23)	智正(권1)	
<義慈軸 次權松溪應仁韻 己未> (7율)	1559(24)	義慈(습유)	산사
<次靈熙軸韻> (7절)	1560(25)	靈熙(권1)	
<送山人敬悅之香山> (7절)	1560~62 (25~27)	敬悅(권1)	
<贈參寥上人 二首 癸亥> (7율)	1563(28)	參寥(권1)	
<題老僧詩軸 僧老而耳聾> (5절)	1569(34)	老僧(권1)	
<有僧惟命求詩甚苦走書以贈> (5절)	1569(34)	惟命(권1)	
<贈山人> (7절)	1569(34)	山人(권1)	월경사
<次山人詩軸韻> (5율)	1569(34)	山人(권1)	
<贈山人雪衣> (5언 6구)	1569(34)	雪衣(권1)	
<有僧求詩 次退溪韻> (7절)	1569(34)	僧(권1)	오대산
<次僧軸韻> (5율)	1569~70 (34~35)	僧(습유)	
<神光寺 題玄旭詩軸> (5절)	1574(39)	玄旭(습유)	신광사
<沈判尹希安守慶 朴參判君沃啓賢 歷見余于花石亭 適山人仁鑑求詩 乃步軸中韻> (7절)	1576(41)	仁鑑(권2)	화석정
<宿衍慶寺 主僧義敏求詩 書其軸> (7절)	1576, 41	義敏(습유)	연경사
<贈天然上人> (5언 18구)	1577, 42	天然(습유)	암천사
<有上人信辯 苦求詩 書以贈之> (7절)	1579~80	信辯(습유)	
<浩然亭酒席 贈山人雲水> (7절)	1580, 45	雲水(권2)	호연정
<贈僧> (5율)	1580, 45	僧(권2)	상원사
<深源寺月夜 季獻彈琴 次玄玉上人韻> (7절)	1580, 45	玄玉(권2)	심원사
<題墳菴僧軸> (5절)	1582, 47	墳菴(권2)	산사

도표를 통해서 교유시의 형식을 분류하면 오절-4수, 칠절-10수, 오율-4수, 칠율-3수, 5언6구-1수, 5언18구-1수, 7언50구-1수로 구성되어 있다. 교유시의 형태로는 贈詩가 11수, 次韻詩가 6수, 詩軸이 5수, 그 외 2수가

더 있다. 상인과의 교유시 공간은 주로 산사가 되겠지만 환로에서 물러나 파주 율곡리로 귀향해서는 화석정과 호연정 등에서도 교유시가 이루어졌다. 시를 통해 밝혀진 공간을 본다면 입산한 금강산이 초기 교유시의 배경 공간이 되고 이후는 강원도 오대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율곡이 외가인 강릉을 가는 도중에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이다.

율곡 교유시를 형식적 면에서 살폈다면 다음에는 내용면에서 나타난 주제나 시적 특징들을 고려하여 시를 분류해본다. 내용 분류에 있어 중복된 주제를 지닌 시들도 있어 전체 시수는 늘어난다. 교유시를 주지적인 것과 주정적인 것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주지적인 시는 교리문답을 통한 불가 비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求詩에 대한 비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주정적인 시들은 산사에서 맛볼 수 있는 탈속미나 청정미가 중심이 되며, 상인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이별의 정한이나 만남에 따른 흥, 그리고 그들에 대한 칭송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상에서 밝힌 상인과의 교유시 유형 분석을 통해 다음 장에서는 개별 시들을 통해 그 특징적 면들을 考究한다.

IV. 상인과의 교유시에 나타난 특징

상인과 교유를 통해 지은 율곡의 교유시 24수는 상인을 대하는 입장에 따라 상이한 시적 양상을 보인다. 유자적 입장을 견지한 교유시의 경우에는 불교 교리에 대한 비판을 통해 유교의 학문적 우위성과 함께 실학적 가치를 강조했다. 반면 신분을 초월한 만남에서는 시적 공간과 결합되어 인간적 정서가 시에 투영되어 나타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상인과의 교유시를 大別하면 첫째 禪學에 대한 儒道의 논리, 둘째 상인과의 정서적

교유, 셋째 교유 공간에 내재된 미감으로 나눌 수 있다.

1. 禪學에 대한 儒道의 논리

율곡의 교유시를 보면 상인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자적 입장이거나 유불을 초월한 인간적 입장이거나에 따라 율곡의 시선은 냉온을 넘나들 듯 다른 양상을 보인다. 유자의 입장에 따른 교유시는 도학의 논리를 근거로 하여 선학의 無證·無徵함을 비판한 후 유도로 나갈 것을 설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4수의 교유시 가운데 8수²⁷⁾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입산하여 풍악산에서 노승에게 준 시와 智正이나 參寥 등에게 준 시에서 유도의 논리가 잘 드러나 있다.

<楓岳贈小菴老僧>

魚躍鳶飛上下同 물고기 뛰고 솔개 날아 상하 하나라,
 這般非色亦非空 저것은 색도 아니요 공도 아니라네.
 等閒一笑看身世 무심히 한 번 웃고 신세를 돌아보니,
 獨立斜陽萬木中 해질 무렵 숲 속에 나 홀로 서 있네. 并序²⁸⁾

27) 『全書』권1 <楓岳贈小菴老僧>, <贈山人智正>, <贈參寥上人>, <題老僧詩軸 僧老而耳聾>, <贈山人>, <次山人詩軸韻>, <贈山人雪衣>, 습유 권1 <次僧軸韻>

28) 并序 “~余欲試其辯 問曰 孔子釋迦孰爲聖人 僧曰 措大莫瞞老僧 余曰 浮屠是夷狄之教 不可施於中國 僧曰 舜 東夷之人也 文王 西夷之人也 此亦夷狄耶 余曰 佛家妙處 不出吾儒 何必棄儒求釋乎 僧曰 儒家亦有卽心卽佛之語乎 余曰 孟子道性善 言必稱堯舜 何異於卽心卽佛 但吾儒見得實 僧不肯 良久乃曰 非色非空 何等語也 余曰 此亦前境也 僧哂之 余乃曰 鳶飛戾天 魚躍于淵 此則色耶空耶 僧曰 非色非空 是真如體也 豈此詩之足比 余笑曰 既有言說 便是境界 何謂體也 若然則儒家妙處 不可言傳 而佛氏之道 不在文字外也 僧愕然執我手曰 子非俗儒也 爲我賦詩以釋鳶魚之句 余乃書一絕 僧覽後收入袖中 轉身向壁 余亦出洞 恍然不知其何如人也 後三日再往 則小菴依舊 僧已去矣”

율곡의 佛敎認識·佛敎觀·禪觀을 논하는 데 있어 마치 하나의 준거로 사용²⁹⁾하는 자료가 위의 시와 并序다. 시는 노승과 율곡의 儒佛敎理 문답 후에 지은 것으로 불교에 대한 율곡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율곡은 노승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①“공자와 석가 중 누가 성인인가?” ②“부도는 오랑캐의 교이니 중국에서는 시행할 수 없다.” ③“불가의 묘한 곳이 유가를 벗어나지 않는데 왜 유가를 버리고 불가를 찾는가.” ④“鳶飛戾天 魚躍于淵”은 색인가 공인가.” 율곡의 4가지 질문에 대한 노승의 답을 보면, ①의 질문에 “선비는 노승을 속이지 말라”고 했고 ②에 대해서는 “舜은 東夷 사람이고 文王은 西夷 사람이니 이들도 오랑캐란 말이오” 했다. ③에 대해서는 대답 대신 “유가에도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말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④에 대해서는 “색도 공도 아니며 이는 眞如의 本體니 어찌 시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느냐”고 했다.

반면 노승이 율곡에게 묻기를, ①“유가에도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말이 있는가”, ②“色도 공도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라 했다. 이에 대해 율곡은 ①의 물음에 대해 “맹자의 性善을 말할 때 요순을 말하는데 이것이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으며, 유가는 실리를 얻을 뿐이다”라고 했다. ②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경우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문답 끝에 노승은 율곡에게 시를 지어 鳶飛魚躍의 뜻을 해석해 달라고 청했다. 위의 시는 노승과의 문답에 따른 결과물이므로 병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단번에 시 속에 담긴 율곡의 의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29) 김상일, 『율곡 이이의 禪 체험과 그 시세계』, 『한국문학연구』24집, 2001; 정향교, 『栗谷의 漢詩에 나타난 儒·佛觀』, 『율곡학보』2집, 1997; 최승순, 『栗谷의 佛敎觀에 對한 研究』, 『율곡학보』1집, 1995; 오경후, 『李珣의 佛敎認識에 對한 研究成果와 課題』, 『율곡사상연구』18집, 율곡학회, 2009; 宋昌漢, 『李栗谷의 禪觀에 對하여』, 『복현사립』3권, 1981.

율곡과 노승의 문답 속에 담긴 핵심 논의는 色·空에 대한 유가와 불가의 입장이다. 본 것, 즉 구체적 현실 속에만 實理를 찾는 儒家의 인식으로써 반야심경의 중심사상인 ‘非色非空’을 아는지 물었다. 노승은 色이란 만물이며 이 만물은 因緣所生의 것이므로 본래의 實有가 아닌 空인 것을 밝혀 대상에 대한 헛된 집착을 떨치라는 불가의 가르침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율곡은 “此亦前境”이라 했다. 色空에 대한 유가적 시각이 무엇 인지를 압축한 말이다. 눈 앞에 보이는 모든 대상, 자연물이 비색비공이란 뜻이다. 이를 부연하기 위해 『시경』<旱麓>의 “鳶飛戾天 魚躍于淵”을 제시하면서 노승에게 다시 이것은 色인지 空인지를 물었다. 노승은 색도 공도 아닌 眞如의 本體라 했다. 노승의 답에서 유불의 분명한 경계가 지어진다. 율곡은 솔개가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가 연못에서 뛰는 것을 통해 약동하는 생명의 모습에서 자연의 법칙을 본 것뿐이다. 색도 공도 아닌, 즉 색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색인 眞如의 本體로 인식하는 노승의 입장을 비판한 것이다.³⁰⁾

시의 1·2구는 바로 노승과의 문답을 통한 율곡의 견해를 집약했다. 물고기는 물에서, 솔개는 하늘에서 자연의 순리에 따른 생명의 비약이자 도의 실현일 뿐이다. 그런 까닭에 불가에서 말하는 색과 공으로 나누어 말할 이 유가 없는 것이다. 3·4구의 해석은 논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풀이를 해놓았다.³¹⁾ 병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노승과 심오한 경지의 대화를 마친 후 홀

30) 서수생은 「퇴율의 불교관」에서 “現象即本體요 本體即現象이란 理事無礙法界觀으로도 풀 수 있고, 色도 아니고 또한 空도 아니라고 하였으니 色空不二의 대응반야관으로도 풀 수 있다. 그러므로 율곡은 “色即空空即色”을 언연중에 부정하려 했으나, 긍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여 율곡은 불교의 논리를 긍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鳶飛魚躍을 事象과 色, 理와 空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事象과 色, 理와 空을 동일선상에 두고 논할 이유가 없다.

31) 박경신은 “일상의 삶 밖에서 도를 찾는 노승의 모습이 결국 깊은 산 속에서 길을

로된 자신을 반추한 심경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병서 말미에 노승에게 一絶을 주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3,4구는 노승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다. 노승과 오도의 경지를 나눈 대화 뒤에 이는 무심한 웃음, 그리고 노승을 바라보는 시선은 애잔함이다. 實理를 따르지 않고 虛明에 빠져 求道의 길을 좇은 노승의 모습은 身世로 비쳐지며 그 신세는 斜陽이며 萬木 가운데 獨立으로 나타난다. 즉 斜陽은 노승이 된 지금이며, 萬木 가운데 독립은 자연의 조화질서에서 이탈하여 허명의 진여를 찾느라 홀로된 노승의 현재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

<贈山人智正>

진략

時揮玉塵辨異同	때로 옥진을 휘두르며 시비를 가리다가,
談邊矛盾紛縱橫	모순된 말끝엔 분분히 논쟁도 벌이네.
憐師惑志未曾變	가없어라 대사의 의혹된 뜻 남아있어,
不遵大路求捷徑	큰 길 버려두고 지름길을 찾는구나.
法輪心印本無徵	법륜도 심인도 본래 증거가 없으니,
三界六道誰汝證	삼계와 육도는 누구라서 징험할까.
吾家自有眞樂地	우리 유가에는 본래 참된 낙지 있어,
不絕外物能養性	외물을 끊지 않고도 본성을 기른다네.
求高立異總非中	고원하고 기이한 길 다 중도가 아니니,
反身而誠可醒聖	자기를 돌려 誠하면 聖을 깨우칠 수 있네
師聞此語始聽冰	대사 내 말 듣고 처음엔 오싹해하더니,
漸似醉夢人呼醒	술에 취했던 사람이 점점 깨어나는 듯.

잃은 외로운 존재와도 같음을 묘사했다.”고 표현하였고, 김상일은 주체의 허심한 경계와 평상적 심경의 상태에서 자연 공간과 하나 되는 자신을 표현한 것이라 말하고 있어 다른 시각을 보인다. 홍학희는 이 시를 설리시의 관점에서 전반적 특징을 말할 뿐 시에 대한 분석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低頭請讀子思書 고개 숙이고 중용 읽을 것을 청하니,
 欲以墨名儒其行 목가 이름으로 유가 행동하는 것일 뿐.
 후락

위의 시는 7언50구로 이루어졌으며 내용상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락(1~16)은 금강산에서 교유했던 때를 회상하는 장면이며, 둘째 단락(17~28)은 5년만의 해후에 따른 기쁨을 보여준다. 셋째 단락(29~42) 이 선학의 허탄에서 벗어나 유도의 가르침을 따르길 바라는 것이라면, 넷째 단락(43~50)은 다시 이별을 앞에 두고 이는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 인용한 부분은 셋째 단락으로 선학의 虛誕高遠에서 벗어나 유가의 참된 樂地를 찾기 바라는 애정이 담긴 내용이다.

금강산에서 함께 유람했던 지정 상인을 5년 만에 만났다. 당시에도 논쟁을 통해 선학의 미혹을 떨치기 바랐지만 여전히 유도의 큰 길로 나가지 않고 첩경만을 구해 虛遠에 빠진 상인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법륜이나 심인, 삼계나 육도는 모두 징험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교리이며 현실 밖의 세계인 것이다. 현실 세계를 떠나 고원하고 기이함을 추구하는 것은 중도가 아님을 다시 강조하고 誠敬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性を 회복하여 유가의 眞樂地를 찾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앞서 논쟁적으로만 대했던 금강산 노승과의 문답과는 달리 中道의 깨달음과 실천으로 인도하려는 知己의 온정적 마음씀이 묻어 있다.

<贈山人雪衣>

石與水相激	돌과 물이 서로 부딪치니,
萬壑清雷鳴	골짜마다 맑은 우레가 울린다.
借問衣上人	문노라 설의 상인이여,
水聲還石聲	물소리인가, 돌소리인가.

爾若下一語 그대 만약 한마디를 한다면,
 便了物我情 물아의 정을 깨달았다 하니.

위의 시는 율곡 나이 34세 때 지은 것이다. 10대와 20대에 지은 앞의 두 수와는 시적 전개나 儒道의 논리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앞의 두 수나 28세 지은 <贈參寥上人>은 유불을 대비하여 불교의 허원을 지적한 후 유도로 인도하려는 유자적 소명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반면 34세에 지은 5수는 구체적 물음이나 선학의 핵심을 들어 미혹된 점을 깨치려는 면모를 보여준다.³²⁾ 그런 점에서 10대의 方強했던 논쟁에서 벗어나 포용적 시각에서 선학의 허탄고원을 깨치고 있다.

위 시는 설의 산인에게 마치 선문답 투로 나가고 있다. 산인에게 돌과 물이 서로 부딪쳐 울리는 맑은 소리는 물소리인가 돌소리인가 묻고 있다. 설의가 이 물음에 한마디 한다면 物我의 情을 안다고 했다. 이 물음에 산인은 대답하지 못하리라는 걸 알고 던지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현상은 因緣所生이므로 거기에 我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諸法無我] 때문이다. 즉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할 뿐이므로 物我의 情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돌과 물의 부딪침을 物과 我로 본다면 돌과 물은 物이 되기도 하고 我가 되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돌과 물의 부딪침에서 울리는 맑은 소리는 결국 物我一體의 경지이자 만물이 조화를 이루어내는 所當然이 되는 것을 밝히는 유가적 논리를 끌어낸 시이다.

32) <題老僧詩軸 僧老而耳聾>은 寂滅과 性의 차이를 말하고자 한 것이며, <贈山人>에서는 ‘無,’의 고원한 화두에 매몰된 산인의 미혹함을 지적했으며, <次山人詩軸韻>은 他選에 들어 우주 질서의 참된 이치를 깨치고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 한 것이며, <次僧軸韻>에서는 실체를 알 수 없는 허원한 도만 구하는 僧에 연민을 보인다.

2. 상인과의 정서적 교유

율곡은 상인과 교유할 때 어떤 입장에서 그들을 대하느냐에 따라 교유 시에서 보여주는 그의 태도는 달라지고 있다. 불교를 異端이라고 보는 유자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불교 교리에 대한 논리적 비판이 앞설 수밖에 없겠지만, 상인과의 인간적 만남이라면 엄격한 유자의 모습은 뒤로 하고 인간적 情理가 들어서게 된다. 상인에 대한 율곡의 정서적 교유는 이별과 호의, 그리고 산유를 통해서 인간적 정리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상인과의 정서적 교유 가운데 이별의 정한을 보여주는 시는 네 수다.³³⁾ 상인과의 이별은 知友와 헤어질 때 보여주는 애뜻한 惜情의 깊이³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雲遊처럼 살아가는 상인이기에 일상의 만남과 헤어짐에서 빚어지는 이별의 정한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잠깐의 만남 뒤에 기약할 수 없는 헤어짐으로 이어지는 상인과의 이별이기에 당연하고 무심한 듯하지만 담담한 속에 담긴 이별의 정한은 긴 여운을 남긴다. 25세 智正 상인에게 준 시부터 살펴본다.

<贈山人智正>

전략

頭流雄鎮蟠地軸 두류산 웅장한 기세 지축 위에 서리어,
路指火維幽且隴 남방을 가리키니 그윽하고 아득하네.

33) <贈山人智正>, <送山人敬悅之香山>, <宿衍慶寺 主僧義敏求詩 書其軸>, <贈天然上人>. 이 가운데 <宿衍慶寺 主僧義敏求詩 書其軸>는 떠나는 이가 화자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34) 『전서』권1, <次李達韻> “泠泠斜雨浸庭莎 小閣開樽別意多 吟罷碧雲燒燭短 秋聲無賴集池荷” 권2, <雪中騎牛訪浩原敍別> “~因悲半生別離足 更念千山行路難 談餘輾轉曉鷄鳴 舉目滿窗霜月寒” 이와 같은 시에서 시공간적 배경과 함께 이미지를 끌어와 우정과 이별의 정한을 더욱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다.

師今遮莫千萬峯	대사는 천만 봉우리 마음껏 다닐 테니,
競秀爭流幾吟詠	빼어난 절경을 얼마나 많이 읊조릴까.
臨流不堪懷抱惡	헤어지려니 회포를 차마 견딜 수 없어,
贈言何待殷勤請	은근히 청할 때까지 어찌 기다릴까만.
但恨鉛槧廢已久	한스럽구나! 오랫동안 글을 안 썼더니,
詩成苦乏詞鋒勁	시는 지었는데 굳센 사기가 모자라네.

위의 시는 금강산을 함께 유람했던 지정 산인에게 써준 7언 50구로, 이 가운데 이별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단락(43~50)에서 보여준다. 지정과의 과거 회상, 재회의 기쁨, 학문적 논쟁에 이어 다시 헤어짐을 목전에 둔 아쉬움의 토로다. 43~46구까지는 지정의 앞으로 여정을 말하고 있으나 이면에는 부러움의 시선과 함께 금강산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지정이 가는 웅장한 두류산을 생각하니 곳곳이 절경으로 펼쳐진 금강산 유람 시절이 하나 하나 연상되었을 것이다. 천만 봉우리에 펼쳐진 절경을 마음껏 노닐 지정과 함께 하지 못하는 섭섭함을 ‘幾吟詠’으로 대신하고 있다.

47~50구는 雲遊의 행보에 동참하지 못하고 헤어져야하는 화자의 애틋함이 담겨있다. 산인과의 헤어짐이기에 ‘臨流’라고 하여 자연스런 이별을 말하지만 여전히 견디기 어렵기만 하다. 이별에 부쳐 자신의 정을 담아내고 싶지만 글로써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 오랫동안 글을 쓰지 않아 기운이 미치지 못한다는 핑계로 이별의 정을 갈무리하고 있지만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석정을 여운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인용구 전반부를 관통하는 막힘없는 기상과 이별을 안으로 채워둔 후반부의 정서가 剛柔의 조화를 절묘하게 보여준다.

<贈天然上人>

余到安峽巖泉寺 天然來謁 是曾破智異山天王峯淫祠者也

전략

我到巖泉寺	내가 암천사에 이르러,
迢倚寒巖頭	차가운 바윗머리에 기대어 있는데.
師從千里來	선사가 천릿길에서 와서는,
一笑回青眸	한 번 웃으며 푸른 눈동자 돌리네.
永夜對孤燈	밤새도록 호젓이 등불 마주 대하고,
清談消客憂	청고한 이야기로 나그네 시름을 녹이네.
明朝舉別袖	내일 아침에 작별의 소매 들면,
路指金剛脩	멀고 먼 금강산 길 가겠지.
重逢渺何許	다시 만날 날 언제일는지 아득하니,
天末脩眉浮	하늘 끝 먼 산을 浮遊하겠지.

이 시는 전후 시를 고려할 때 율곡 나이 42세(1577)에 지은 것이며, 장소는 강원도 安峽 巖泉寺이다. 모두 18구로 이루어졌는데 생략한 부분은 1구~8구로, 천연 상인의 장대한 기운, 깊은 깨달음, 걸림 없는 雲遊 등을 통해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인용한 9구~18구는 천연 상인과의 만남, 그리고 이별을 맞이하며 이는 애뜻한 정을 그리고 있다. 상인과의 만남과 회포를 묘사한 9구~14구는 속된 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清雅한 분위기를 품어낸다. ‘寒巖 - 青眸 - 孤燈 - 清談’으로 이어지는 시어는 배경과 그 속의 인물들까지 청정의 세계로 이끌어 그들의 만남과 交情이 예사롭지 않다.

상인과의 이별의 정은 15구~18구에서 담아내고 있다. 앞서 淸高한 만남을 통해 세속의 잡사를 떨칠 수 있어 호젓한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화자는 바라고 있다. 반갑고 기쁜 만남은 늘 시간을 재촉한다. 벌써 이별을 예감해야만 하는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내일 아침 멀고 먼 금강산을 가야할 상인을 위해 보내는 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매를 들어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別袖’는 송인의 심경을 압축하고 있다. 펄럭이는 소매자락에 석정을 함께 펼쳐 날리는 듯하면서도 소매자락 안으로 이별의 정을 갈무리해 애뜻함을 더해주는 효과를 보인다. 그런 점에서 別袖는 脩眉浮와 연결되어 하늘 끝 먼 산을 浮遊할 상인의 안녕 기원일 수 있고 함께 하고픈 바람을 대신하는 것일 수 있다. 상인과의 이별이기에 곡진한 이별의 정을 대신해 담담함으로 그 씩진함을 다하고 있다.

『牛溪集』권1에 <有僧持詩軸來謁 軸中有栗谷詩 癸巳 時寓石潭書院>³⁵⁾이란 시가 수록되어 있다. 계사년(1593) 우계에게 보여준 승려의 시축에 율곡의 시가 있는데 석담서원에서 우거할 때 지은 것이라고 했다. 율곡의 행적을 고려한다면³⁶⁾ 그가 벼슬을 물리고 석담으로 돌아와 오랜 시간 머물렀던 때(1577년 42세)일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우계에게 보여준 율곡의 시는 아마 <贈天然上人>인 듯싶다. 지음을 잃은 데 대한 상심을 애절하게 드러내고 있어 내용에 있어서도 율곡의 앞선 시와 대응된다.

상인과의 정서적 교유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이별이다. 율곡은 보내는 이의 애뜻한 심정을 담담함과 여운으로 담아 이별의 정서를 표출했다. 한편 산수간의 노닐은 이별의 정함과 달리 자연과의 화락에 따른 흥취를 동반한다. 빼어난 산수가 있어 흥취를 불러일으키고 그 사이를 함께 노닐 지우가 있다는 것은 흥취를 고조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셈이다. 유산에 따른 흥을 보여주는 시는 두 수³⁷⁾가 있다.

35) “知音已去朱絃絕 山月孤來溪水悲 偶與老僧尋舊話 天涯垂淚獨踟躕”

36) 율곡이 해주 석담으로 처음 내려온 때는 1576년(41세) 10월이었으나 12월에 임경하였기에 오랜 시간 있지 못했다. 반면 1577년(42세) 1월에 다시 석담으로 내려와 머문 시간은 1579년 5월 대사간으로 임명되기 전까지이다. 그런 점에서 우계에게 보여준 시의 주인은 천연상인일 확률이 높다.

37) 『전서』권1, <與山人普應下山至豐岩李廣文之元家宿草堂 乙卯(1554)>, <贈山人智正>

산인 普應과 함께한 유산은 금강산 청학동에서 그치고 하산하여 풍암의 초당에 머물면서 梅月이 함께하는 춘야에 이는 풍류로 마무리하고 있다. 보응과의 유산은 불가적 흥취를 보이고 있다. 수련의 “學道卽無著, 隨緣到處遊”는 율곡의 유산이 어디를 지향하는 지 보여준다. 나를 벗어 집착에서 자유로워 인연 따라 발길 닿는 대로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다. 산인과 함께하는 무소유적 유산의 흥취가 드러나는 장면이다.

산인 智正과 함께한 유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시의 전반부는 19세 때 금강산 유람을 회억하는 장면이다. “泉石膏肓天與病”이라 할 정도로 산수를 좋아했으며 행장은 竹杖과 芒鞋뿐이다. 풍악산 일만 이천 봉을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절경을 찾아다녔던 지정과의 유산은 그 자체가 흥취이고 자연과의 화락인 것이다. 5년이 지나 지정과의 재회는 당시의 감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금의 흥취는 “尋花傍水動相隨”로 집약된다. 마치 꽃을 찾아 서로를 따르는 나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자연이 주는 흥취를 넘어 자연의 품으로 날아들어 하나가 되는 모습이다. 이렇듯 산유를 통한 상인과의 정서적 교유는 집착을 벗어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同樂으로 이어진다.

3. 禪定 공간의 미감

상인과의 교유시에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교유 공간이 지닌 미감이라 할 수 있다. 상인과의 교유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공간이 산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공간이 주는 미감을 유추할 수 있다. 산사는 禪定을 위한 공간이다. 그렇다면 선정 공간은 산란한 마음을 멈출 수 있고 마음을 고요하게 통일하여 三昧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율곡은 상인과의 교유시 6수³⁸⁾에서 선정 공간의 미감을 보여주고 있다. 선

정 공간의 미감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지은 시부터 살펴본다.

<義慈軸 次權松溪應仁韻 己未>

尋得松梢暮磬音	저물녘 소나무 끝의 풍경소리 찾아드니,
梵宮瀟灑隱靑林	푸른 숲속에 깨끗한 절 숨어 있네.
僧穿藜榻根塵靜	명아주 의자에 앉은 스님 근진이 고요하고,
客步晴嵐洞壑深	나그네 이내 갠 골짜기 드니 깊기도 하네.
趨俗歎吾空昧目	부질없이 세속을 쫓는 어두운 내 눈이 한스럽고,
坐禪憐汝只蓬心	봉심으로 좌선하는 네 모습도 가엾구나.
清宵相對論同異	맑은 밤 마주 앉아 이리니저러니 논하다,
話罷開窓月照襟	이야기 끝에 창을 여니 옷깃에 달이 비치네.

위의 시는 율곡 24세 때 상인 義慈에게 준 것이다. 수련은 시·공간적 배경 묘사를 통해 선정의 공간을 이끌어내고 있다. 저물녘 소나무 끝 사이로 청아한 풍경이 울리고, 감추어 두었듯이 청림 속에는 말갭게 씻긴 산사가 나타난다. 함련은 산사의 스님과 화자를 대비하여 선정의 모습을 보여 준다. 스님이 명아주 의자에 앉아 모든 감각과 욕망을 끊듯이 속인은 이내 건한 깊은 골짜기에 들어 속세의 연을 끊고 있다.

수·함련에서 선정의 공간을 마련했는데 경련에 이르러서는 반전을 보인다. 일체의 사념을 頓忘케 한 공간을 마련했으면 응당 三昧로 들어가야 하지만 오히려 자탄의 소리가 나온다. 선정의 공간에서조차 사욕을 쫓고 있는 속인과 寂靜을 위한 좌선이지만 온갖 사념에 빠진 스님에 대한 처연한 심사를 토로하고 있다. 미련은 다시금 선정의 공간으로 유도한다. 清宵,

38) 『전서』 권1 <次靈熙軸韻>, 권2 <沈判尹希安守慶 朴參判君沃啓賢 歷見余于花石亭 適山人仁鑑求詩 乃步軸中韻>, <深源寺月夜 季獻彈琴 次玄玉上人韻>, <題墳菴僧軸>, 습유 <義慈軸 次權松溪應仁韻 己未>, <神光寺 題玄旭詩軸>.

話, 月照의 조화가 만들어낸 山房은 경련의 자성이 이끌어낸 공간으로 자성을 통해 자연과의 합일로 이어진다. 이 시에서 보여주는 선정 미감은 일관된 흐름의 양식에서 벗어난다. 경련에서 보여주는 자성은 그 흐름을 방해하여 선정 미감을 훼손하지만 오히려 흐름의 단절은 청량한 밤, 맑은 담소, 달빛의 조응을 통해 선정 공간은 조화의 미감을 담아내고 있다.

<神光寺 題玄旭詩軸>

客坐絕巖上	높은 바위 위 나그네 앉았으니,
笙簫天上來	피리 소리 천상에서 들려온다.
山人飽禪味	산인은 선정에 깊이 들었는데,
秋岫錦屏開	가을 산봉우리엔 비단 병풍 펼친 듯.

이 시는 율곡 나이 39세 때 상인 玄旭의 시축에 써준 것이다. 시의 공간적 배경은 황해도 벽성군 北嵩山에 소재한 神光寺다. 시는 起承과 轉結이 이분되어 공간과 인물이 각각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기승에는 화자의 공간이 있고 전결에는 현욱의 공간이 존재한다. 화자의 공간은 신광사 인근의 높은 바위 위다. 끊어질 듯 가파른 바위 위에 화자 홀로 앉아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絶崖에 자신만 홀로 앉아 孤寂에 빠졌다. 자신으로의 沈潛인지 무념의 一心不亂인지 그렇게 絶巖에서 덩그러니 혼자 있다. 달을 곳이라곤 하늘뿐인데 신선의 피리소리가 천상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생소의 아름다운 가락은 절암과 천상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있다. 절암에서의 ‘上’과 천상에서의 ‘來’가 조음함으로써 상하의 합일을 이룬 것이다.

起承이 객과 天의 조음이라면, 轉結은 山人과 秋岫의 조화다. 선방의 산인은 坐禪³⁹⁾을 통해 편안하고 寂靜한 경지에 이르러 자타의 분별이 사

라진 모습을 보여준다. 三昧에 든 산인을 감싸 안고 있는 것은 가을빛 물 든 산봉우리들이다. 조그만 티끌도 들어설 수 없는 맑은 공간에 단풍의 따스한 색깔을 둘러놓아 선정 공간의 미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시의 특징은 기승과 전결이 이분되어 펼쳐지고 있지만 실상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기승의 絶巖과 天上, 전결의 禪房⁴⁰과 秋岫는 서로가 소통하는 공간이다.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 확장하면 絶巖, 天上, 禪房, 秋岫는 하나의 공간에 들어오고 그 사이의 객과 산인 또한 둘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선정 공간의 미감은 無碍, 造化, 合一이라 할 수 있다.

<深源寺月夜 季獻彈琴 次玄玉上人韻>

山月斜移萬木陰	산 달이 비스듬이 못 나무 그늘을 옮기고,
溪風吹雜六絃音	계곡바람 불어와서 거문고 소리에 섞인다.
香煙銷盡長廊靜	향 연기는 사라지고 긴 행랑은 고요한데,
兀對高僧坐夜深	고승과 마주 앉아 깊은 밤을 보내네.

이 시는 율곡의 나이 45세 때 아우 李瑀와 함께 경기도 연천의 寶蓋山 深源寺에서 묵으며 지은 것이다. 起承은 산사의 주변 경관을 시각과 청각적 이미지로 나누어 보여준다. 달빛은 나무를 따라 느릿하게 이동하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적막한 산사에 소리 없는 움직임은 포착하고 관조하는 화자의 시선에서 俗氣를 떨친 유자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시각화된

39) 이수광은 『芝峯類說』권18 「外道部」<禪門>에서 坐禪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밖으로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안으로 쓸쓸해도 요동하지 않으면 이것을 坐라고 한다. 빛을 돌이켜 도로 비쳐서 범의 근원을 알아내면 禪이라 한다.(外撼不動 中寂不搖 謂之坐 回光返照 徹法根源 謂之禪)”

40) 禪房이란 구체적 공간은 나오지 않으나 禪味를 고려한다면 禪房은 당연히 있어야 할 공간이다.

산사 주변의 정경이 溪風과 六絃을 통해 청각화하여 시각과 청각의 조화를 이룬다. 달빛 내린 산사에 응혼하고 깊은 음색을 자아내는 거문고의 울림은 고요 속에 하나가 되고 때마침 불어오는 계곡의 바람 소리 또한 탄금과 합주하여 시각과 청각의 이미지는 합일에 이르게 된다. 맑은 밤하늘에 내린 달빛과 그림자, 그리고 육현과 계풍의 울림은 산사가 보여주는 그대로의 자연이자 선정의 공간인 것이다.

起承이 사·청각의 이미지를 통해 산사 주변이 품고 있는 청정한 선정 공간을 그렸다면, 轉結에서는 산사 내부로 시선을 돌려 淸談을 통해 선정 공간의 미감을 보여준다. 법당에 피워놓은 향불마저 사그라들고 행랑채에는 인기척조차 없는 깊은 산사의 밤이다. 고요가 모든 것을 잠재운 시간이지만 고승과 마주한 화자는 답소를 이어간다. 그들의 답소는 깊은 밤 고요와 어울려 禪味를 자아낸다. 화자와 산인은 산사와 하나 되어 선정의 공간에 녹아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즈음에 보여주는 선정 공간의 미감은 공간과 詩中 인물들의 일체화를 통해 경계와 분별이 사라진 物心一如의 경지를 보여준다.

V. 마무리

본 논문은 율곡의 교유시 가운데 상인과의 교유를 통해 지은 24수를 대상으로 그 특징적 면모를 밝혔다. 교유시의 대상이 상인이란 점을 고려하여 불교에 대한 율곡의 인식을 우선적으로 고찰했다. 불교에 대한 율곡의 인식은 금강산 입산 전과 후에 따라 나뉜다. 입산 전 율곡의 불교 인식은 호의적이라 할 수 있다. 불교의 교리가 간편하면서도 고상하고 오묘하다는 점과 모친의 죽음에 따른 生死의 설에 감명 받아 입산하였지만 결국 그것

들은 터무니없는 속임수로 거짓말임을 깨닫고 하산한다. 유자 본연의 자리로 돌아온 율곡은 선학의 誣辭僞說함을 들어 異端의 학설임을 천명함으로써 배불론의 입장에 섰다. 비록 율곡 생애의 전반이 불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지만 불교의 학문적 영향은 理通氣局說과 같은 독자적 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율곡의 상인과 교유시에 나타난 특징은 ‘禪學에 대한 儒道の 논리’, ‘상인과의 정서적 교유’, ‘禪定 공간의 미감’으로 대별될 수 있다. ‘禪學에 대한 儒道の 논리’에 해당하는 8수는 도학의 논리를 근거로 하여 선학의 無證 無徵함을 비판한 후 유도를 깨칠 것을 설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8수 모두가 선학에 대한 율곡의 논리적 비판이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온도 차이를 보인다. 혈기방강 했던 시절에는 논쟁적으로 선학의 허탄고원을 非討했다면, 30대를 넘어서는 유자적 소명의식을 온정적으로 펼치고 있어 시간에 따른 냉온의 차이를 볼 수 있다.

‘禪學에 대한 儒道の 논리’의 시들이 유자적 입장에서 따른 불학에 대한 비판적 면모를 보였다면 ‘상인과의 정서적 교유’는 인간적 情理를 보여준다. 상인과의 정서적 교유를 담은 시들은 이별의 정한과 유산에 따른 흥취가 주를 이룬다. 상인과의 이별은 知友와 헤어질 때 보여주는 애뜻한 惜情의 깊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긴 여운을 남긴다. 雲遊처럼 살아가는 상인과의 이별이란 점에서 속인과 같은 곡진한 정을 토로하는 대신 담담함으로써 이별의 깊이를 대신한다. 상인과의 정서적 교유으로 유산에 따른 흥취가 있다. 상인과 함께한 유산의 흥취는 한마디로 무소유며 자연과 同樂으로 이어진다. 집착에서 벗어난 상인과의 유산이란 점이 무소유의 흥취를 자아내게 하며 물이일체의 유자적 유산이 자연과 동락으로 이어지게 한다.

‘禪定 공간의 미감’은 상인과의 교유이며 그 공간이 산사라는 점에서 상인과의 교유시가 지닌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율곡이 보여주는

선정 공간의 미감은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20대에 지은 시의 경우 선정 공간을 전면에 배치하지 않고 있다. 자성을 통해 선정 공간과의 조응을 이루고 있어 이원화에 따른 조화의 미감을 보여준다. 반면 40대 즈음한 이후의 시들은 無碍, 造化, 合一의 경지에 따른 미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본고에서 求詩와 관련한 논의는 생략했다. 名士에 대한 상인의 구시에 따른 시들은 대체적으로 私情과 俗事에 얽매인 상인들에 대한 힐책이 중심이 된다. 율곡의 교유시에도 이와 다를 바가 없어 본 논문에서는 제외했다.

【참고문헌】

- 김상일, 「율곡 이이의 禪 체험과 그 시세계」, 『한국문학연구』24집, 2001, pp.233-251.
- 김혜숙, 「율곡의 교유시 연구1」, 『한국한시연구』8집, 2000, pp.189-212.
- 류명중, 『退溪와 栗谷의 哲學』, 동아대학교출판부, 1987, pp.1-534.
- 박경신, 「栗谷 李珣의 交遊詩 考」, 『한문고전연구』12집, 2006, pp.95-123.
- , 「栗谷 李珣의 道學詩 考」, 『한문고전연구』7집, 2003, pp.44-67.
- 박춘희, 「栗谷의 ‘沖澹蕭散’과 그의 詩世界」,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1-60.
- 배중호, 「栗谷의 理通氣局說」, 『동방학지』27집, 1981, pp.17-63.
- 배진한, 「栗谷 山水詩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p.1-78.
- 서수생, 「퇴율의 불교관」, 『한국의 철학』15호, 1987, pp.35-60.
- 손유진, 「율곡시에 나타난 산수유람 체험의 형상화 방식과 지향」, 『동방학』 24집, 2012, pp.67-88.
- 宋昌漢, 「李栗谷의 禪觀에 對하여」, 『복현사림』3권, 1981, pp.93-103.
- 宋錫球, 『韓國의 儒佛思想』, 思社研, 1985, pp.1-425.
- 오경후, 「李珣의 佛敎認識에 대한 研究成果와 課題」, 『율곡사상연구』 18집, 율곡학회, 2009, pp.111-144.

- 원형갑, 「栗谷과 東洋의 詩學精神」, 『울곡사상연구』2집, 1988, pp.183-222.
- 유성선, 『栗谷 李珣의 修養工夫論』, 국학자료원, 2002, pp.1-197.
- 이희재, 「울곡의 불교관」, 『울곡사상연구』11집, 2005, pp.155-176.
- 정향교, 「栗谷 李珣의 儒學詩考」, 『울곡학보』2집, 1996, pp.38-69.
- , 「栗谷의 漢詩에 나타난 儒·佛觀」, 『울곡학보』2집, 1997, pp.48-77.
- 조기영, 「『정언묘선』의 풍격과 栗谷의 詩道」, 『동양고전연구』31집, 2008, pp.85-116.
- 최문형, 「栗谷의 主氣論的 文學觀과 詩世界」,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pp.1-180.
- 최승순, 「栗谷의 佛敎觀에 對한 研究」, 『울곡학보』1집, 1995, pp.155-176.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Yulgok's Poetry in His Social Intercourses
with Buddhist Priests

Kim, Won-jun

This paper presents an investigation into the characteristics of poetry of Yulgok through his social intercourses with Buddhist priests. The characteristics of his poems about his social intercourses with Buddhist priests were categorized into "Confucian logic about Buddhism," "emotional exchanges with Buddhist priests," and "aesthetic sense of Seonjeong space." Under the category of "Confucian logic about Buddhism," Yulgok elucidated that Buddhist priests should realize Confucianism after criticizing Buddhism for its lack of logic and futility. Under the category of "emotional exchanges with Buddhist priests," he mainly depicted the emotions involved in parting and the excitement according to Yusan. Parting with a Buddhist priest was characterized by a profound lingering sentiment even though it evoked no heartfelt affection that one would feel in parting with a close friend. The excitement with Buddhist priests according to Yusan had characteristics of non-possession and living with nature. Under the category of "aesthetic sense of Seonjeong space," Yulgok wrote poems in the background of mountain temples with som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periods.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s were prominent between his younger years, when the Seonjeong space was not placed in the front and thus showed the aesthetic sense of harmony based on dualization, and his older years, when he exhibited his aesthetic sense according to Muae, harmony, and unity.

Key Word : Buddhist Priests, Intercourses poetry, Seonjeong(禪定) space, emotional exchanges, parting, excitement according to Yusan(遊山)

김원준

소속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전자우편 : kimwj1004@ynu.ac.kr

이 논문은 2016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7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8월 5일 게재 확정됨.